



2025년 7월호(제 247호)

소중한 사람들

바람 부는 날

이른 아침
바람이 불니다.

몽땅 이 바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가난한 우리 집에
서글픈 바람이 불니다.

흔탁한 이 나라에도
욕심의 바람이 불니다.

휩쓸고 지나가도
붙잡아도 가둘 수 없는 바람

그러나
바람은 잘 견디내면,
흘려보내면 지나갑니다.

바람이 잔잔해진
저만치
당신이 이미 오고 있습니다.

시/ 유정옥

발행인 이성일, 유정옥

[소중한 사람들] 주소 04502 서울 중구 중림로 8길 12 · 전화 02-365-9106 · 팩스 02-365-9104 · www.ppp.or.kr

[소중한 사람들힐링센터] 주소 경기 가평군 청평면 큰갈월로226 · 전화 031-582-0191 · www.pphealing.com

소중한사람들 암환우 힐링센터 이야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출 15:26)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막 10:27)

암환우는 낫는 것이 사명이요, 사역입니다!

이 세상 모든 어머니에게 자식은

오랜만에 주일에 심방이 잡았습니다.

오후 예배 후 가족 모두가 심방을 가기로 했는데, 창피가 토요일부터 배가 아파하더니 주일에도 계속 아프다하여 합니다. 결국 주일 오전 예배 후 아내와 아이들을 먼저 침병으로 보내고, 저만 남아 오후 예배 후에 어머니와 송신교사님과 함께 심방 팀이 되어 심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금요일쯤 저급은 고인이 된 김○○자매의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시골에서 갑자기 마늘이방 및 가지 채소를 드리고 싶은데 칭평은 멀고 서울역에 갖다 드릴까요..."

그렇게 말끝이 흐려지더니 갑자기 우십니다.

"아이구... 우리 ○○자매가 전국에 잘 갖는데... 엄마가 이렇게 매일 옮면 자매가 얼마나 슬퍼할까! 어머니 그만 옮아요..."

김○○자매 어머님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입니다.

"..."

다시 목소리를 가다듬고 어머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돈 벌러 다니느라... 잘 해주지도 못했는데..."

이번에는 걱정이 느껴지며 말하여 우십니다.

"아이구, 알았어요. 주일에 서울역에 10시부터 2시 사이에 오시면 됩니다."

"그래요."

이렇게 온갖 칭성으로 키운 김○○자매 어머님의 체조가 주일에 있는데 칭평으로 가져갈 차가 없었습니다. 저는 심방 후 ITX로 칭평에 돌아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주일 봉사와 예배를 섬기고 심방까지 다녀와서 피곤할 텐데 어머니가 칭평에 가지고 하십니다.

"어머니! 가서 쉬세요. 제가 화요일 노랑진 수산시장 갈 때 새벽에 가져가면 되지요."

"아니야. 지금 기아 해. 채소 숨 디 죽어서 안 돼!"

송신교사님이 늘 어머니를 위해 운전해 주시기에 저는 힐끗 선교사님 눈치를 봤더니 웃고 계십니다.

"아이구 사모님 고집을 어떻게 이겨요."

그래서 결국 어머니, 선교사님을 서울역 차로 모시고 채소까지 모두 실고 칭평으로 있습니다. 주일 저녁 식사를 칭평에 오셔서 제 옆에서 잘 드셨고 이제 가서야 하는데, 편히 선교사님이 "빨리 가야겠다 하네" 하며 뭔지 모를 꿩에 같은 뉘앙스의 말을 하고 서둘러 가십니다. 저는 그 마지막 말씀의 뉘앙스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와서 아내에게 오늘 어머니가 칭평까지 왔다 가셨다고 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당신 정말 사랑하시나 보다."

겸연쩍어서 다른 곳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자식을 안 사랑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

"아니, 어머님은 정말 당신을 아끼시는 것이 느껴져."

어머니가 왜 칭평에 오셨을까? 뭔가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새 주가 시작되어 화요일에 전화가 있습니다.

"나 지금 칭평에 거의 다 왔어!"

"왜요?"

"자인 가져가야 해서."

보통 때 같으면 저는 또 전화에 '왜 그러시나'며 잔소리를 했을 것입니다.

'아 계계 가져오라 하시지...'

그러나 주일에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더 저와 함께 있고 싶어하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날 수요일 오전에도 전화가 오고, 오후에도 전화가 왔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주일에 하면 되지 그리 자주 전화하시나'고 편안을 드렸겠지만, 이제 그 마음을 알게 되니 자꾸 슬퍼졌습니다. 그저 전화로 뭔가 부탁하시는 것에 벌대든 대꾸 없이 '네'라고만 대답합니다. 뚱뚱스럽지 않고 싶은데... 자꾸 뚱뚱스럽게 '네'라고만 대답합니다.

이제 어머니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인 대법원에 상고 절차를 지난주에 마쳤습니다. 이제 결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다른 어떤 때보다 더 기운을 내서 설고도 하시고 여러 일들도 하시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기운에 계시는 것이 느껴집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이 세상 모든 어머니들에게 자식은 모든 것인가 봅니다.

그래서 당신의 모든 것을 보지 못할까 그 불안한 마음에 자식을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보고 싶어하시는 듯합니다.

글 / 이성일 목사

함께 가는 길

여주 교도소를 다녀와서

내가 추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험벗었을 때에 손을 입혔고, 험난한 때에 돌보았고, 후에 간했을 때에 차서 보았느니라 (마태복음 25장 35절-36절)

이 말씀이 마음에 있어 여주 교도소를 찾았다.

네네계이션에도 이곳은 나오지 않는다. 숲으로 둘러 쌓인 넓고 푸르른 곳.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아픔과 막막함, 두려움과 불안을 암고 있는 곳이다.

나는 정경희 집사와 송연숙 선교사님과 함께 갔고 남인우 목사님과 만났다. 우리는 여자 수감자가 있는 여자 교도소에 들어갔다.

30명 가량의 여자 수감생들이 조용히 들어와 있었다. 하늘 색 옷과 원님자 고무신을 신고 있었다.

나이는 20대에서 75세까지 다양한 연령대였다.

수요일 날은 불고, 천주교, 기독교가 들어가서 1시간 동안 교회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배운 수감생이 30명 가량 된 것이다.

내가 기도를 했고 정경희 집사님과 송연숙 선교사님의 특송이 있고 정경희 집사님의 성경봉독과 남인우 목사님의 설교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남인우 목사님이 나에게 이야기 할 것이 있으면 해도 좋다고 해서 내가 이야기를 하리 강단에 섰다.

그 30명의 얼굴이 내 눈에 들어왔다.

20세의 옛된 얼굴과 75세의 회포회곳한 머리카락이 어우러진 슬픈 저희상이다.

여자들은 “사기”회가 많다고 하는데 전파 사기꾼은 다 도망가고 아무 것도 모르는 여자들이 다 걸려들어 온 것 같았다. 이런 체념한 듯 평온한 습성을 뒤집어 있었다.

나는 “앤드류 서”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전했다.

앤드류는 19살에 자신의 어머니를 죽인 혐의로 일급살인으로 100년 형을 받았다. 그러나 그것이 누나의 음모였다. 오두막인은 어머니를 죽인 사람에 아니었다. 앤드류는 100년형을 받을 때 너무 두렵고 멀려 죽을 것 같았다. 그러나 그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의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앤드류는 이제 더 이상 외로움도 두려움도 없었다.

앤드류는 데일 교도소에서 나오고 싶어 했다. 매일 하나님께 “내가 오늘 나가는 날인가요?”하면서 그날 나오는 것처럼 즐거워하며 자신의 것을 다른 이에게 나눠주며 즐겁게 지냈다. 그리고 밤이 오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 아니고 내일이군요.”하면서 자리에 눕고 또 새 날이 밝으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인가요?”하면서 매일 매일 밖으로 나오는 꿈을 가지고 살았다. 수제 칼로 교도소 직원이 죽자 수제 같이 누구 것인가? 찾았는데 같은 방에서 함께 기거하는 백시간 것인가? 역시간에 내 것 이 아니라고 하자 앤드류와 두 사람을 도방에 기운다. 도방에 들어가면 1년 동안 의부와의 교류가 단절된다. 밥도 적질 감옥 소로 넣어준다. 청가방 같은 감옥소에서 있는 1년 동안 다른 죄수들은 짐승처럼 출부겠다가 자살하기도 한다. 독방에 갇혀 앤드류도 울고 있는데 침대 밑에 무언가 희끗한 것이 보였다. 침대 밑으로 손을 넣어보니 다 남아진 성경책이었다. 그는 성경책을 손에 넣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하고 득대하고 싶으셨군요.”

1년 동안 주옥같은 성경책을 읽으면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과 매일 매순간 득대하는 데 나와 함께 있었던 백시간은 슬플거에요 하나님아 그 백시간도 올바주세요.”라고 기도한다.

그리고 형무소에서 근로하여 조금 번 돈으로 미국 진역에 번호사들에게 편지를 쓴다. 1년, 2년 7년.. “사람은 나를 잊어버리겠으나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지.” 하면서...

7년 만에 LA에 사는 번호사가 쓰레기통에 버리려 했던 앤드류를 편지를 읽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계판을 다시 받는다. 세 번의 일리노이 주지사의 청문회를 거친다.

미국은 아무리 모범수라 해도 일단 받은 정역형이 달라질 수 없다.

그런데 앤드류는 모범수로서 사람들의 머리를 살라주는 이발도 해주고 요리도 했다.

그리던 중 생각지도 않았던 2024년 1월 26일 형무소에 들어간 지 30년 만에 가석방의 은혜를 받은 것이다.

건설회사에서 경리로 일하던 여사를 만나 올해 5월에 약혼을 했고, 9월 27일 결혼을 한다.

얼마나 기슴 훌리는 이야기 인가?

우리 모두는 앤드류의 이야기로 다시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였다.

30명의 수감자들이 웃었고 나도 웃었다.

끝나고 두 손을 꼬고 잡는 그들의 마음속에 앤드류와 함께 하셨던 주님이 오늘 자신에게도 함께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 수감자들을 만난 것이 아니라 내 형체를 만난 듯 서로 웃고 웃으며 우리는 주님을 친ight했다.

글 / 유정우

소중한 사람들 서울역 텔터(Shelter) 이용안내



누가 사용 할 수 있나?

1. 소중한 사람들 텔팅센터를 이용하시고 계신 분.
2. 소중한 사람들을 텔팅센터를 이용했던 분 중에 지내는 동안 문자가 없었던 분들. 그러나 누구든 일환우이야 하고 병원 이용의 스케줄이 있어야 합니다.
3. 특별히 빙사선 치료시에는 빙사선 치료 진단서를 가져오시면 치료하는 동안 머물 수 있습니다.

텔터 이용내내

1. 소중한 사람들에서는 병원에 갈 때에 사들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돌아오는 시간이 힘우를 마다 달라서 돌아오는 서울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텔터가 사전도면서 돌아갈 경우 서울역에서 돌아오면 되도록 하였습니다. 돌아올 때에는 김포의 진도사님과 상의하면서 스케줄을 맞추시면 됩니다. 단, 대부분 서울역에서 머물고 돌아올 수 있으니 먼저 돌아오길 원하시는 분은 기자로 미전처럼 돌아오시면 됩니다.
2. 티소켓한 분들 중에도 지방에서 서울로 오셨을 경우 텔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쉴 곳이 없어서 다른 친인척의 집이나 어려운 환경을 전전하셨던 분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입니다.
3. 5급 이상의 장기 기주는 불가합니다. 다만 빙사선 치료의 경우에만 치료 기간 동안 기주가 가능합니다. 보호자의 경우 소중한 사람들을 텔팅센터에 입소하셨을 때에 등록하신 보호자는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무나 머물 수 없음에 양해해 주셔야 합니다.
- 소중한 사람들을 텔터에서는 아침, 점심, 저녁 세끼 모두 제공됩니다. 예비는 소중한 사람들을 텔팅센터에서의 동일하게 오전 11시 저녁 7시 예배가 드리자며 3층 채플실에서 TV로 함께 드리게 됩니다.

소중한 사람들 리트리트 센터(Retreat Center)

말씀과 자연, 삶을 통하여 힐링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기도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앤리야처럼 로뎀 나무 아래에서 평안한 삶을 일으는 것입니다.

- 입소 기준 : 예수 믿는 누구나 삶을 원하시면 입소가 가능합니다(다만 정신 질환, 전염병이 있는 분, 이단 단체 및 개인, 기타 공동체 생활이 어려운 분들 제외).
- 입소 기간 : 한번 신청 시 최대 6일을 지낼 수 있으며, 퇴소기준은 토요일 오전입니다. 따라서 목요일에 오셨더라도 토요일 오전에는 모든 입소자가 퇴실하게 되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 입소 비용 : 무료입니다.
- 입소 수칙 : 하루 두 번 예배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믿음이 있는 분이셔야 합니다. 따라서 입소 즐차에서 교회 출석을 점검합니다. 또한 공동체 생활이므로 공동 생활을 원치 않으시면 입소가 어렵습니다. 최대 3~4명 정도가 같이 지낼 수 있습니다.

입소를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십시오. (031-582-0191) - 소중한 사람들 힐링센터 -



리트리트 센터 이용 후기

리트리트 센터를 이용하셨던 분들의 소중한 후기를 담았습니다.

1. 신*환 (5일간)

짧은 시간 리트리트센터에서 은혜의 시간을 갖게 되어 감사합니다. 아프리카 한센인 교회 사역하는 선교사인데 간암과 이식수술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힐링센터 한분 한분의 해맑은 웃음과 사랑의 밝은 감동을 받고 갑니다. 예배가운데 이성일 목사님의 마지막 메시지를 가슴깊이 새기며 내려갑니다. 저희들도 선교지에 돌아가서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뿌리겠습니다. 주님의 벽성을 위해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2. 신*남 (5일간)

이렇게 귀한 소중한 사람들 힐링센터를 방문하고 쉬며 예배하며 소중한 분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힐링을 만나게 됨에 큰 은혜와 축복을 누렸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귀한 삶 속에 나날이 소중한 분들이 치유되는 기적과 능력의 소문이 세상 끝까지 항내나시길 크게 축복하여 기도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 정*만 (6일간)

입소한 첫 날에 자녀와 섬김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친사의 모습들을 보게 되고 항상 웃음이 끊이지 않고 다가와주시는 환우분들의 모습이 참 감사했습니다. 등산트레킹에서 상쾌함과 청량함이 너무나 좋았고 서로 격려하며 “다 나았다!” 서로 위로해주는 모습들은 큰 힘이 된 것 같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병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예배시간이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더욱 낮아져야하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됐으며 예수님의 섬김과 겸손이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 영광 드립니다.

4. 손*진 (6일간)

병동처럼 둘러쳐진 산자락과 숲, 골짜기 물소리와 새소리가 어우러진 천성적인 한국의 산에 침엽수, 활엽수가 가득하여 저같이 폐기 연약한 환자에게 적격인 곳입니다. 동병상련이란 이런 것인가 할 정도로 병원과는 또 다른 일상체제들의 위로와 격려는 마치 천국생활의 예표같이 생각됩니다. 매일매일 2번의 예배와 중보기도 생활로 말씀과 기도의 양 날개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생활로 기쁨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소중한 사람들 암 환우 힐링센터에 천사회원이 되어주세요.

암환자들의 안식과 영혼구원을 위한 섬터

소중한사람교회에서는 암 환우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돌보기 위해 암 환우 밀접선언자를 길립합니다.
암은 가족 한 사람의 질병이不是 가족의 고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환우와 가족들을 친인척과 고지하고 출보와 노래기 위해 세워진 것입니다.

친구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두려움 없이 주님께 나눌 수 있도록 오직 환우의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천사회원은 후원하시 후에 생활·생년월일·주소·연락처를 반드시 문자로 남겨주시거나 02-220-9100

소중한사람은 암 환우 힐링센터 운영사업에 천사회원이 되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으로 계속 동역하기를 소원합니다.

청평힐링센터 운영천사회원 6월 가입자 명단 (16명)

54000원 54 남한산 550 홍보진 551 김현준 552 원경숙 553 박금숙 554 유희숙 555 김정국 557 임경근 558 김정진 559 오경현 560 김희봉 561 김경진 562 김민숙 563 박민

청평암환우 힐링센터



청평힐링센터 후원물품



소중한사람들 암 환우 힐링센터를 위한 천사회원 1구좌 100만 원 분납 가능과
시작한금(시운 기부에 참여하셨다면 아래 신청서로 문의하고 계좌를 송금하시면 됩니다.)

전화 02-365-9106 | 송금계좌 국민은행 97195304571 소중한사람들교회

목요 Precious Worship

소중한 사람들 힐링센터는 매주 목요일 충보기도회를 기립니다. 지역자 여러분들의 충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 배(경예송44) - 특성강과 함께 한번씩 맞습니다. 부악동(부종, 은미종, 구리금)과 함께 부작은도 차워이며 주운소사
2. 죽(장년소리) - 경이 오르고 면반수가 말미 수령을 하면서는 상황의 친척으로 말하고 있고 노동재가 광수를 깨고 일어나면서 통증이 다스려지거나 고통스럽습니다. 이 모든 통증을 헤아주시고 아름 세우는 영역입니다.
3. 유(일례송21, 활약44) - 경주 주부(승송)하고, 눈이 깊은 불안증, 파마인(부종) 등이 주류이며 주립니다. 미처 있는 빠티수술이나 앓고 줄이들이기를 기도합니다.
4. 흰(승예송44, 소리) - 누군가의 진리를 풀어놓고 그에 따른 결과를 알기 위해서는 일상과 일상에서도 일상의 진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을 전합니다.
5. 한(한예송44) - 예배에 출석하고 한마음과 함께 활동하는 경로입니다. 모든 말씀을 고려 드립니다.
6. 모(선예송1) - 2년간 절과 함께 4%를 그리고 경주 힐링센터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기도합니다. 예배는 춤을 맡아 좋은 춤자와 재우(기)를 기도합니다.
7. 밤(경예송44) - 악을 부드럽게하고 평화로운 춤을 자유롭게 추옵소서
8. 도(선예송1) - 충정으로 만족하는 주님과 함께 고맙게 추옵니다. 자비로운 도움으로 말씀을 드리옵소서
9. 양(국제예송1) - 영파(영광)입니다. 경로 교회에서 기도하고 새들을 자유롭게 수용옵니다.
10. 마(수신예송1) - 소재(원) 선물을 받은 경주에서 기도(선물)과 마음이 전이되는 수물을 맡아 주립니다. 모든 경제를 기사하고 소울 달을 원하며 두종, 건강증진, 과민, 대중증을 기유하며 주운소사
11. 홍(전국예송1) - 경주 원로부에서 그리고 경주 지역에서 일상과 주님으로 일상으로 고사(수사), 내전(내장)에서 아파 날을 때내며 본의 원심을 물려주는 부모의 자리를 감에 차리도록 바랍니다.
12. 모(국민예송1) - 대체로 경주에서 기도합니다. 경주에는 살해당하거나 사망된 이들이 미드란하고 보존하며 하나님의 주도적인 일을 살게 해옵소서
13. 청(한예송1) - 경주 지역을 맡고 경주 지역 부부가 계제하고 있습니다. 영역을 기록(기록)하는 경우 일상(일상)으로 가족들과 함께 기도(기도)합니다.
14. 흰(한예송1) - 경주 지역을 맡아 주님과 함께 기도합니다. 영역을 기록(기록)하는 경우 일상(일상)으로 가족과 함께 기도합니다. 영역을 기록(기록)하는 경우 일상(일상)으로 가족과 함께 기도합니다.
15. 경(기호예송1) - 경주 지역을 맡아 주님과 함께 기도합니다. 영역을 기록(기록)하는 경우 일상(일상)으로 가족과 함께 기도합니다. 영역을 기록(기록)하는 경우 일상(일상)으로 가족과 함께 기도합니다.
16. 날(별예송1) - 평화(전)에서 기도합니다. 경주 지역을 맡아 주님과 함께 기도합니다. 영역을 기록(기록)하는 경우 일상(일상)으로 가족과 함께 기도합니다.
17. 갈(승을수(수)예송1) - 경주 주부(승송)과 부부(부)로 속한 회복(회복)하고, 복행(복행)을 통해 일상(일상)으로 기도합니다.
18. 갈(승을수(수)예송1) - 경주 주부(승송)와 부부(부)로 속한 회복(회복)하고, 복행(복행)을 통해 일상(일상)으로 기도합니다. 경로 예배에서 경주 지역의 제물과 함께 기도합니다.
19. 한(한예송1) - 유험(유험)에 걸친 두 경로를 기도합니다. 경로 예배에서 경주 지역의 제물과 함께 기도합니다.
20. 경(한예송1) - 경로 수령을 무너지 않기 위해 체인(경련)이나 가슴 조경(조경)과 수술(수술)을 듣는다. 좋은 결과를 기록(기록)하는 경우는 농지(농지)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21. 경(장기예송1) - 경로(경로)의 생애 면역력을 돋운다. 새로운 생활(경기)을 기록(기록)하는 경우는 신부의 삶을 살피게 하옵소서
22. 발(발예송1) - 어떤 그림과 함께 기록(기록)하고자 하는 경로(경로)의 삶을 살피게 하옵소서. 경로(경로)의 삶을 살피게 하옵소서
23. 경(국내예송1) - 경로(경로)의 일상(일상)하고자 하는 경로(경로)의 일상(일상)을 살피게 하옵소서. 경로(경로)의 일상(일상)을 살피게 하옵소서
24. 경(길상증원1) - 경로(경로)로부터 경로(경로)를 기도합니다. 경로(경로)로부터 경로(경로)를 기도합니다. 경로(경로)로부터 경로(경로)를 기도합니다.
25. 경(길상증원1) - 경로(경로)로부터 경로(경로)를 기도합니다. 경로(경로)로부터 경로(경로)를 기도합니다.
26. 아(암신예송1) - 경로(경로)의 일상(일상)을 기도합니다. 경로(경로)로부터 경로(경로)를 기도합니다.
27. 사(손예송1) - 경주에서 살았던 아버지(부친)와 어머니(모친)를 기도합니다. 경주에서 살았던 아버지(부친)와 어머니(모친)를 기도합니다.
28. 꽃(방(방)예송1) - 2주일 남짓(제2동, 제3동, 제4동) 6/2주일 PCT 당시, 6/2주일 기간이나내를 만나니 꽃과 노끄는 꽃찾아서 기념(기념)을 기도합니다. 좋은 결과를 기도합니다.
29. 꽁금(꽁금) - 하나님과 가까워진 스스로 탐험(탐험)을 치열하게 주고고 예의(예의)로 사랑(사랑)을 기도합니다.

암 환우들을 위한 중보기도회

- 일시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 장소 : 소중한 사람을 암환우 힐링센터 (경기도 가평군 칭령면 큰길월로226)
- 말씀 : 유정목사도 ■ 기도회 인도 : 이성열 목사

기도모임을 함께할 새농기부자들을 기다립니다.
(PPT 만들기/연변기자그 외 악기연주)

페이스북, 유튜브에서 유정목사모의 설교영상(설교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업로드 되는 영상의 알림을 받으시려면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소중한 사람들 힐링센터
www.facebook.com/preciouspeoplehospice

YoutTube
www.youtube.com/user/mihdloveone

목요기도회



서울역 이야기

서울역 전도

소중한사람들은 매주 주일 서울역 광장으로 노방전도를 나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리라”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전도자들은 노숙인들이 필요한 것들을 적게나마 나누어 드리고,
노숙인들은 감사로 회답합니다.
일방적으로 주기만 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전도자들은 그들의 감사한 마음을 빙듭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소중한사람들입니다.



소중한사람들 교회



소중한사람들 교회 매일 오전 10시 30분 예배와 성찬나눔

노숙인들이 마을 쭉고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서워주신 노숙인 전용 교회인 소중한사람들 교회는 명절이나 휴일도 없이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예배를 드려온 지 2년을 되었습니다.

소중한사람들은 하루일과 위지 않고 매일 예배를 드리고 하루 150명의 노숙인들에게 점심을 나누고 있습니다.

6월에는 3일, 10일, 17일, 24일 이대부속초등교 학부모성정동독립, 이대부속우체원 5일, 10일, 조이풀교회 7일, 조이어스교회 10일, 새빛초 11일, 어금네시아 14일, 이박호37기 16일, 서빙고온누리교회 17일, 별무리학교 20일, 함께올래 21일, 아박호47길 25일, 강동온누리교회 27일, 고래내교회 28일, 장성교회 29일에 봉사해 주셨습니다.

개인 봉사자들은 김경리, 김순희, 김명우, 김영우, 김진수, 김현수, 박봉희, 박진희, 송경우, 송수경, 송홍렬, 심지현, 윤영자, 이소영, 이은영, 이한자, 임윤섭, 전두희, 전영숙, 정경희, 조진영, 조희진, 최경희, 화금연, 황부영, 향귀용, 황보혜, 한예스터, 한현희 남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김용수, 송기승, 이계영, 허정안, 한승희, 김경숙, 김강태, 정경희, 임맹자, 박인혜, 박문희, 장종수, 강덕희, 김명우, 이주희, 윤희, 이향희, 개인봉사자들이 주말에 수고해 주셨습니다.

소중한사람들 교회는 노숙인들에게 영양있고 맛있는 밥을 대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숙인들이 매일 예배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 주는 것이 더욱 중요한 사명임으로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서울역 전도단: 이주희, 김명우, 강인봉, 김정미, 송기승, 화정희)

소중한사람들 무료 급식과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구yan란은 영혼이 더하여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밀음을 전하시는 일요일 아번주 화요일 징계정 수요일 징기증 목요일 조건성 금요일 이은월 토요일 유정숙 주일 이성일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과 거래를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다양한 봉사 참여

다양한 봉사로 소중한 사람들과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전양으로 봉사하시는 이대부속초성경동독립과 소중한찬양단
- * 소식지 우편물 작업 지원 봉사를 해주신 이대부초성경동독립
- * 봉사와 후원금을 전달하신 새빛소
- * 노숙인들에게 후원품을 준비하여 전달하신 소망교회
- * 17명의 노숙인들에게 무료 진료를 해 주신 선한목자병원 이창우 원장님과 간호사 선생님
- * 32명의 노숙인들에게 이발 봉사를 해 주신 이발 미용 봉사단
- * 간식 나눔과 후원물품 나눔으로 함께 봉사에 참여해 주신 많은 팀과 개인봉사들

모두 감사합니다



후원물품

- * 소매를 보내주신 무령님 * 서울역 전도를 위한 커피를 후원하신 김명숙님
- * 빵을 후원하신 천안 투엘브 카페 * 비나나를 후원하신 에글레시아, 포이어스교회
- * 과프리카를 후원하신 이소영님 * 토마토와 바섯을 후원하신 황귀용님 * 부식을 준비해오신 소망교회
- * 절편으로 노숙인을 대접하신 장성교회 * 데지고리를 후원해 주신 (주)노아
- * 소고기를 후원해 주신 하나프라임

빵과 과일, 그리고 여러 후원 물품으로 노숙인분들을 위해 섬겨주신 후원자 분들의 심김 감사드립니다.

6월 후원 물품 내역

후원일	후원자	후원물품	후원수량	사용일	사용내역	사용처
6/8	무령	소맥	400kg	6/03	급식	소중한찬양단 교회 노숙인
6/12	푸드뱅크	빵/식자	2백kg	6/12	나눔	서울역 가로등 속인
6/13	푸드뱅크	빵/부식	400kg	6/12	급식	소중한찬양단 교회 노숙인
6/19	전안 우체국	빵	700kg	6/20	급식	소중한찬양단 교회 노숙인
6/29	푸드뱅크	빵/부식	700kg	6/30	급식	소중한찬양단 교회 노숙인
7/0	빵귀용	보리, 밀가루	100kg	6/30	급식	소중한찬양단 교회 노숙인
7/0	로이스교회	비나나	200kg	6/30	급식	소중한찬양단 교회 노숙인
7/12	간방우	비자	400kg	6/12	나눔	서울역 가로등 속인
7/12	이소영	파프리카	100kg	6/12	급식	소중한찬양단 교회 노숙인
7/13	푸드뱅크	빵/부식	700kg	6/13	나눔	서울역 가로등 속인
7/18	에레세라이	비나나	200kg	6/14	급식	소중한찬양단 교회 노숙인
7/20	푸드뱅크	빵/부식	200kg	6/17	급식	소중한찬양단 교회 노숙인
7/20	소방소외회	부식	100kg	6/20	나눔	소중한찬양단 교회 노숙인
7/20	푸드뱅크	빵/부식	400kg	6/22	나눔	서울역 가로등 속인
7/21	푸드뱅크	빵/부식	400kg	6/24	급식	소중한찬양단 교회 노숙인
7/25	푸드뱅크	빵/부식	300kg	6/26	급식	소중한찬양단 교회 노숙인
7/26	이노마	데지고기	60kg	6/25	급식	소중한찬양단 교회 노숙인
7/27	푸드뱅크	빵/식자	200kg	6/25	나눔	서울역 가로등 속인
7/30	하나프라임	우체신 풍선	100kg	7/08	급식	소중한찬양단 교회 노숙인
7/30	장성교회	절편	90kg	6/30	급식	소중한찬양단 교회 노숙인
7/30	푸드뱅크	빵/부식	200kg	7/08	급식	소중한찬양단 교회 노숙인



상당 · 치유 · 봉사

선한 병원 이창우 원장님 18년 동안 한결같은 사랑의 손길
주님이 병자들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치유해 주신 것과 같이 18년 동안
한결같이 노숙인들을 찾기위해 치료해 주시는 선한 병원 이창우 원장님
을 기다리는 노숙인들은 마치 아버지를 만난 듯 아픈 환부를 보이며 치료
를 받는다. 외상이 심한 환자는 이창우 원장님의 즉석에서 수술까지 해
주신다.

매일 둘째주 토요일 11시부터 진료가 있다



증보기도 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소중한 사람들은 사업을 기도로 드는 회오 중보기도 모임이 어느덧 1063회가 되었다.
소중한 사람들은 사업을 기도로 드는 회오 중보기도 모임은 합심하여 기도한다. 중보기도 모임은 소중
한 사람들을 더끌어 가는 가장 중요한 일정역이다. 기도로 하나님과의 사역을 드릴 때에는 사람은 누구나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증보기도 제목

1. 소중한 사람들 사업

- 1) 노숙인들이 예수 양심, 건강 척진, 기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 2) 소중한 사람들은 365일 예배와 절실 나눔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기도)도록
- 3) 전교, 상담, 사랑, 사랑, 의류 생활용 나눔의 금급과 통사자
- 4) 타국인을 살피는 소중한 사람들은 주민 센터 사업을 위해

2. 소중한 사람들 암환우 힐링센터 운영

- 1) 최고의 의료진이 동역 할 수 있도록
- 2) 암환우들의 양 육간의 원만한 치유

3. 소중한 사람들을 해외사업

- 교과 11호월 양복과 무료 급식·미안한 중국, 멕시코, 브라질, 아이티

4. 아이티 사업

- 교육 -炳과후 학교, 컴퓨터교육 2) 고아(어후원 3) 성글암 사업 4) 항무소사업 5) 무로진로 6) 손건등 보급

5. 차유 - 선교진, 최우윤, 김정신, 정성미, 정은경, 풍수진, 이태율, 곽효정, 배운경, 김정덕, 정경희, 진호원, 양정분, 유숙을 한치용, 김경주, 밤미란, 김소녀, 최은영, 김동숙, 강현, 풍수강, 조준호, 오희순, 남승관, 한상희, 김소경, 이태순, 김병국 암소화 있는 원수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6. 박효정, 이태호, 이복희, 이상철, 이기열, 박영희, 김현중, 최은희, 이혜숙, 김민희, 이우경, 안정희, 유준애, 이경숙, 정동익, 이정화, 고백숙, 김순정, 최정임, 권은미, 이민진, 신현숙, 박경미, 풍순진, 구자은, 인중복, 김기희, 윤태현, 정경희, 김하양, 이순조, 김자운, 김형나, 권유승, 이은구, 주재희, 하미숙, 최봉민, 훈준기, 최승자, 이경숙, 이철리, 김지연, 유필관, 조구철, 이민규, 이병선, 구현주님이 암에서 온치를 받았습니다. 다시는 암이 재발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7. 신증진님이 마지막에 맞은 스마트폰을 주시 호과기 나泥土할 수 있도록 겨우족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9시 이후 주사의 호과기 미화하고 의료보험 공단에서 주사를 나주지 않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주사가 헐실험 상태입니다. 신청전이 다시 스마트폰 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후원자님들의 기도제목을 보내주시면 증보기도 모임에서 함께 기도해드립니다.
street9106@naver.com 010-2210-9106<문자로>

후원자님께 드리는 편지

만물이 폭염으로 품삯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도 물이 나고 강물이 말라 바다를 드러내고
빙하는 녹고...
우리들은 지구의 아름을 알고 저마다의 삶에서 조심하고 방탕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목자 현금을 보내주신 미국 뉴저지의 조온리 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십일조를 보내주신 강원도 김광대, 김광대 정경희, 김영진 손미나, 김용수 송연숙, 이성웅 이한나, 정종대 진승연 가족에게 감사드립니다. LENOX WORLD MISSION에 감사드립니다.

강덕희, 강성희, 강온미, 강기현, 고무원, 김기람, 김갑희, 김미영, 김영림, 김영진, 나은선 노아, 도문식, 문영숙, 박금용, 박인희, 박철규, 박혜수, 송기승, 성한영, 신명순, 신현정, 신현정, 신현정, 신현정, 유흥현, 유에스더, 유영재, 유흥우, 윤원숙, 이고은, 이세린, 이정관, 이율령, 이은주, 이주희, 임나리, 장종숙, 정다연, 정재근, 조미영, 최영화, 최진우, 한은숙님께 감사드립니다.

교회에서 보내주신

(기감)인양감리교회, (예장) 경주제일교회, 영락교회, 베이직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기관 감사 헌금을 보내주신 온누리 약국 복지회와 조국어 성경통독팀에게 감사드립니다.

개인 감사헌금을 보내주신 강원봉 김경미, 김명수, 신현우, 주정운, 김용수 송연숙, 박영일, 유진상, 황귀용, 이성웅 이한나, 경정희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이티 선교헌금을 보내주신 조경숙, 한종식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이티, 미얀마, 멕시코, 중국, 북한의 고아들을 섬기는 일에 현금에 주신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CMS를 통해 매달 후원해 주시는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사람들을 암환우 힐링센터 섭김 현금을 해 주신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후원자님들의 시험과 후원에 힘입어 집을 넣고 기족을 맡고 앞날의 희망마지 않고 거리에서 휴리하던 노숙인들이 무료급식 혜택을 받고 365 일 매일 드러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아이티' 미얀마, 멕시코, 중국, 북한 등 열악한 환경에서 부모 없는 고아들이 희망의 꿈을 키우며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암환우 힐링센터' 운영을 위하여 인금을 보내주신 손길을 통하여 암환우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구원받고 있습니다. 환우의 가족들이 구원받고 있습니다.

입에서 시름받고 간강한 몸으로 하나님과의 사역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들은 사업을 위해 힘에 견도록 후원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는 후원자님들의 사랑의 수고로 더 모든 사업을 할 있게 하고 있습니다.

후원자님들이 죽고 있는 가족 간의 관계가 더욱 되고 평안하기를 소원합니다.

성체적인 어려움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질병의 고통에서도 온전히 치유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소중한 사람들은 암환우 일정센터에 입소해 있는 암환자 신행신, 최우윤, 김정신, 정은영, 왕우진, 이혜숙, 곽희성, 배윤경, 김종녀, 유흥을, 한치용, 박미란, 정소녀, 최은미, 김경주, 풍수강, 한상희, 김소경, 오희순, 조준호, 김예증, 이혜신, 서영준, 일경희, 김승연, 전정희, 박성례, 김현수, 정장민, 오경선, 일중숙, 여정수, 우현아, 김지연, 유필관, 조구철, 이민규, 조경숙, 이철리, 김지연, 구현주님이 암에서 온치를 받았습니다. 다시는 암이 재발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2년을 한결같이 소중한 사람들과 동역해온 후원자님들에게 남마다 영혼을 구원하는 기쁜 소식을 후원자님들께 전달하는 소중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소중한 사람들을 유정옥 드립니다

2025년 6월 소중한 사람들교회 현금

(2025년 6월 01일 ~ 6월 30일까지)

●십일조 현금●

강덕희(850,000)	강성희(190,000)	강월봉(310,000)	강운미(50,000)	강지현(80,000)	고무월(200,000)
김기현(400,000)	김광래(240,000)	김미영(220,000)	김연미(100,000)	김령남(50,000)	김영진(100,000)
김용수(송연숙)(350,000)	나은경(600,000)	노이기(100,000)	도문식(300,000)	군경숙(200,000)	박금숙(100,000)
박언혁(160,000)	박철구(300,000)	박예수(500,000)	심간식(150,000)	송기승(200,000)	신명숙(210,000)
신현경(870,000)	선행진(450,000)	연유선(300,000)	우진미(500,000)	류광현(520,000)	유마승(220,000)
유영자(250,000)	윤정희(250,000)	이고운(190,000)	이성윤(100,000)	이성윤(250,000)	이세린(250,000)
이영주(40,000)	이윤길(120,000)	이은수(1,000,000)	이주경(350,000)	민나(600,000)	장중숙(120,000)
정다연(100,000)	정재근(355,000)	정종태(310,000)	조마영(100,000)	최경희(100,000)	최진숙(200,000)
한은숙(400,000)					

●개인 감사헌금●

JangRachel(50,000)	강덕희(20,000)	강월봉(300,000)	강윤옥(10,000)	곽혜란(50,000)	곽호정(100,000)
권정연(100,000)	급식후원(10,000)	김갑희(90,000)	김경숙(20,000)	김경식(10,000)	김남이(100,000)
김동연(10,000)	김명우(100,000)	김미선(50,000)	김파영(20,000)	김미정(30,000)	김성희(30,000)
김순득(100,000)	김영희(20,000)	김영선(10,000)	김용수(송연숙)(200,000)	김미정(10,000)	김정훈(10,000)
김종현(100,000)	김대현(50,000)	김아영(100,000)	김염숙(60,000)	김현세(20,000)	김현숙(30,000)
김희정(50,000)	나미정(100,000)	나충숙(120,000)	노숙안전법(10,000)	노원관(30,000)	분해정(20,000)
민노열(10,000)	박대수(15,000)	박문화(50,000)	박봉희(50,000)	박성원(10,000)	박서준(50,000)
박영일(100,000)	박영진(50,000)	박정숙(10,000)	박정숙(30,000)	박종석(30,000)	박지원(10,000)
박진희(50,000)	배경원(10,000)	변경자(20,000)	서호숙(100,000)	성경숙(이경민)(50,000)	송개수(30,000)
송기승(90,000)	심료정(10,000)	인형숙(10,000)	임복근(13,000)	오경남(20,000)	오선홍(100,000)
오지식(100,000)	윤재현(130,000)	윤정숙(10,000)	유진수(노귀품)(20,000)	윤진(30,000)	대경자(100,000)
이기현(40,000)	이문숙(80,000)	이미달(100,000)	이선아(100,000)	이성윤(이현나)(80,000)	이성희(5,000)
이영주(50,000)	이용길(50,000)	이윤규(10,000)	이윤정(100,000)	이윤정(50,000)	
이은주(100,000)	이재성(50,000)	이정선(100,000)	이주희(20,000)	이지은(10,000)	이철호(15,000)
이태경(50,000)	이연경(50,000)	이왕희(50,000)	임은경(10,000)	김금숙(100,000)	김한경(100,000)
김충숙(100,000)	장지호(50,000)	전예정(10,000)	장경희(180,000)	정명례(20,000)	정주연(50,000)
장천리(10,000)	정대현(10,000)	정혜현(50,000)	조상희(50,000)	조율금(10,000)	조정희(10,000)
조정희(10,000)	조진경(50,000)	주진주(10,000)	주혜현(10,000)	최성근(10,000)	
최경희(50,000)	최진희(20,000)	학태원(30,000)	한경숙(10,000)	한보성(100,000)	한승희(100,000)
안여스다(100,000)	허동죽(10,000)	홍복길(100,000)	황누현(30,000)		

●교회 감사헌금●

(기감)별도교회(100,000) (기감)선사증양교회(100,000) (기감)선한복자교회(100,000) (기감)안양감리교회(200,000) (기성)지도성결교회(50,000)
 (기성)아한성결교회(100,000) (예장)경주제일교회(200,000) (예장)문교교회(100,000) (예장)양의문교회(30,000) (예장)장락교회(300,000)
 (예장)부산교회(100,000) (기본)우리교회(100,000) 베이직교회(1,000,000) 비전성서침례교회(30,000) 예동교회(50,000) 예수사랑교회(30,000)
 은혜교회(50,000) 장성교회(100,000) 주천장교회(50,000) 한곡기독교당회(50,000)

●기관 감사헌금●

(주)비트데크(100,000)	갓피플웨딩(50,000)	개영난답(50,000)	로고스스타디어(20,000)	마리나(30,000)	사랑의센터(50,000)
연예미학수학학원(100,000)	온누리악국복지재단(100,000)	온누리악국복지재단(300,000)	조자마성장통제원(545,42)	창세예술엔(50,000)	

●미안미고야 선교헌금●

㈔GPP(50,000)	곽상미(40,000)	김영자(100,000)	김부나(40,000)	김재민(40,000)	김현석(40,000)
박경근(40,000)	박경숙(40,000)	박찬성(40,000)	안성분(송경옥)(40,000)	윤혜경(40,000)	이성자(40,000)
이승자(40,000)	이동숙(40,000)	이예민(40,000)	장경애(40,000)	장민수(40,000)	주경운(40,000)
최신애(40,000)	최신애(40,000)				

●중국고야 선교헌금●

윤혜경(40,000) 이예민(40,000) 조은식(40,000)

●멕시코고야 선교헌금●

김동연(40,000) 유희경(40,000) 이례란(40,000)

●북한고야 선교헌금●

㈔GPP(50,000)	강현아(40,000)	궁금희(20,000)	김명호(20,000)	김미량(40,000)
김소영(5,000)	김기현(20,000)	안재아(40,000)	윤혜경(20,000)	
이은자(100,000)	이수미(50,000)	이승주(20,000)	정미주(40,000)	한상준(10,000)
	황수아(40,000)	황수영(15,000)		

●북한선교 현금●

(주)온누리아국복지재단(100,000)	남기국(10,000)	박혜영(30,000)	신경자(100,000)	이은색(30,000)	이향자(50,000)
이례란(50,000)	상승아(50,000)	선해봉(10,000)	자선옥(20,000)		

●베트남선교 현금●

강연기(40,000) 강구현(40,000) 김영립(30,000) 박진희(40,000)

●아이티고야 선교헌금●

(사)온누리아국복지재단(40,000)	(사)온누리아국복지재단(40,000)	(사)온누리아국복지재단(40,000)	(사)온누리아국복지재단(40,000)	(사)온누리아국복지재단(40,000)	(사)온누리아국복지재단(40,000)
(사)온누리아국복지재단(40,000)	갓피플웨딩(40,000)	갓피플웨딩(40,000)	김민순(40,000)	고손미(40,000)	
김경희(40,000)	김대현(손향)(40,000)	김상진(손향)(40,000)	김호련(50,000)	노현정(40,000)	박시준(100,000)
백선언(40,000)	박선우(80,000)	세산교외(40,000)	손행(40,000)	송현주(80,000)	송현주(80,000)
연서점(송정희)(40,000)	윤경희(40,000)	미계현(40,000)	이진의(40,000)	이민우(40,000)	장도연(손향)(40,000)
장정문(40,000)	조경희(40,000)	조경숙(40,000)	제설희(30,000)	최준호(80,000)	하선포(40,000)
			홍경희(40,000)		

●아이티 선교헌금●

김은숙(40,000)	구정(300,000)	박영미(35,000)	박증희(20,000)	박혜진(10,000)
성한숙(50,000)	이정희(30,000)	조경희(100,000)	조경희(100,000)	최준호(50,000)
	한솔(300,000)			



소중한 사람들의 사역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01 소중한 사람들 교회에서 봉사할 분들이 필요합니다.

소중한 사람들 교회에서는 매일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대접하고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주실 분들이 필요합니다.
(종림파출소 뒤, 서울의료보건고등학교 후문 암).

소중한 사람들에 현금을 보내시려면

01 자동이체를 원하시는 분은 연락 주시면 자동이체신청서를 보내드립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팩스로 보내도 됩니다.

(전화 02-365-9106, 팩스 02-365-9104)

02 웹사이트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www.ppp.or.kr

03 자유롭게 보내실 분은 후원계좌로 보내시면 됩니다.

우리은행 1005-404-619993 소중한 사람들 교회

04 해외에서 보내시려면

- 우리은행 1005-902-662715 은행/지점명 WOORI BANK CHUNGnim DONG BR SWIFT CODE : HVBKKRSEXXX 소중한 사람들 교회
- 은행송금 WOORI AMERICA BANK 419019146

05 암환우 힐링센터 운영을 위해 전사회원이 되시려면 1구좌(100만원)을 아래 계좌로 보내시면 됩니다.

암환우 힐링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 현금도 아래 계좌로 보내시면 됩니다.

농협 355-0059-6115-03 소중한 사람들 교회 국민은행 97195304571 소중한 사람들 교회

06 소중한 사람들 확장 소망 현금 계좌는 아래로 보내시면 됩니다.

농협 351-1307-8109-23 소중한 사람들 교회

※ 후원금을 변경하시거나 확인하시려면 사무국으로 연락 주십시오.

소중한 사람들 후원신청서 (F. 02-365-9104 작성 후 팩스로 보내주세요.)

신청인	성명			이메일				
	자택전화			휴대전화				
	주소							
후원내역	후원목적 (V표해주세요)	<input type="checkbox"/> 목적지정 안함 <input type="checkbox"/> 노숙인 사업 해외고아 1:1 결연(4만원) <input type="checkbox"/> 미얀마		<input type="checkbox"/> 노숙인 교회 <input type="checkbox"/> 암 환우 힐링센터 <input type="checkbox"/> 아이티 <input type="checkbox"/> 멕시코 <input type="checkbox"/> 중국 <input type="checkbox"/> 북한				
	후원금액	원	후원구분	<input type="checkbox"/> 일시후원 <input type="checkbox"/> 정기후원				
	후원방법	<input type="checkbox"/> 자동후원(CMS) <input type="checkbox"/> 직접 계좌이체 <input type="checkbox"/> 현금 <input type="checkbox"/> 기타()						
CMS	은행명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생년월일 (예금주)	(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출금일자	매월 / <input type="checkbox"/> 6일 <input type="checkbox"/> 16일 <input type="checkbox"/> 26일	통장구분	<input type="checkbox"/> 개인통장		<input type="checkbox"/> 법인통장		

한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8길 12 TEL 02-365-9106 FAX 02-365-9104 www.ppp.or.kr

아이티 DELMA 75, PORT-AU-PRINCE, HAITI TEL 509-3655-7153

멕시코 Lote 4 Man Zana 7 s/n nationalistade Sanchez Tabada la Meza Ensenada, B.C cp22790 TEL 521-646-947-9250

미얀마 No724/D, No(41) B,E,P,S Lane, Lower Mingaladom Road, Sintngu @TR, Insein Township yangon, Myanmar.
TEL 951-645858, 959-73086721

중국
북한